한국 개인치과의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환자에 대한 횡적 역학적 연구

포도나무치과[1], 서울대학교 대학원[2]
송경원[1*], 김영석[2]

목적: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, 개인 클리닉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분포와 방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
방법: 저자의 연구는 성별, 진단, 연령대별, 연간 사례(2005년, 2009년, 2013년)별로 국민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비교했습니다. 대상자는 서울의 한 개인 클리닉에서 국민보험에 가입된 3,536명의 환자였습니다.

결과: 성별이나 사례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둘 다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. 가장 흔한 치아 상태는 치수염과 충치로 각각 38.4%와 16.4%였습니다. 둘 다 감소했습니다. 전체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10세 미만 환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습니다. 전체 연령대 중 10대가 33.5%로 가장 많았고, 40대와 50대(각각 14.2%, 12.0%)가 2위, 3위를 차지했습니다.

결론: 환자의 주요 질병은 치수염, 충치, 발진 장애, 치은염 및 치주염입니다. 치수염 사례의 감소(상당한 비율)와 실제 환자 수가 전반적인 사례 감소에 기여했습니다.

주요 단어: 역학 연구; 종단 연구; 국민 보험 환자